



광남일보



광주경총, 회원사 2배로...“올해 1000개사 목표”
양진석 회장 취임 이후 경영상담 지원 등 혜택 호응

7



윤병태 나주시장, 농업발전 개선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

8



“사회적 약자·지역 선도산업 등 심층 조명”
2025년 광남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제1차 회의

10



광주FC, 고베 잡고 ACLE 8강 쏜다
1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서 2차전

12

주간 제7800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윤력 2월 13일)

■ 해상풍력 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에너지 대전환 속도

전남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시대 연다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로 요약되는 전남의 ‘에너지 분야 3대 시책’이 날개를 달게 됐다.

전남 미래산업 지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에너지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데다 해상풍력·태양광 등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국적인 관심이 이어지면서다.

특히, 에너지 3법 가운데 전력망확충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전남지역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산업과도 밀접해 전남의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에너지 3법이 통과되면서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 등 전남 3대 에너지 시책도 속도를 내

에너지고속도로·RE100 등 ‘전남형 3대 시책’ 날개 21.8GW 발전 허가... 연 1인당 50만원 이익 공유
햇빛·바람자원 활용 데이터 관련 기업 유치 탄력

게 됐다. 먼저 이번 특별법 통과를 바탕으로 도민 1인당 약 50만원(연간 평균)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책이 본격 추진된다.

에너지 기본소득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거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신안군이 추진중인 햇빛연금이 대표 사례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 주민 주도로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태양광 발전회사의 수익의 30%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거리에 따라 분기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8만원의 햇빛연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햇빛연

금 누적 지급액은 220억원을 돌파했다.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발전 허가를 받은 21.8GW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이 확산되도록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영광·신안·완도는 이미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영암·해남·진도 등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에너지 기본소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잉여 전력을 전려 다소비 기업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나선다. 현재 전남의 전려 자립률은 198%를 넘어섰다. 이는 대규모 풍

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도는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345kV급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 정책과 국가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3법 통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기업 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내세웠다.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데이터 관련 대기업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풍부한 햇빛·바람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은 인구유입 효과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로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미뤄지나

현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결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

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번주 내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 분석이다. 현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

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현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2면에 계속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출·퇴근길 5·18민주광장과 전남도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각각 나서고 있다.

“국민의 뜻...尹 대통령 파면돼야”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1인 시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5·18민주광장 시계탑 앞에서 ‘윤석열 파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강 시장은 ‘국민의 뜻, 윤석열 파면’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퇴근길 시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또 11일에는 오전 8시부터 광주시청 앞 5·18기념공원 교차로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관련기사 4·5면
강 시장의 1인 시위는 근무시간 외 출·퇴근 시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될 때까지 지속된다.

강 시장은 12·3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광주지역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그는 광주와 서울에서 펼쳐지는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검찰이 ‘의도된 무능으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내란수괴 윤

석열이 파면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파면’ 피켓을 들고 출근길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위한 1인시위를 시작했다”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또 “구속 취소 이후에 윤석열이 사과 한마디 없이 영웅이나 된 것처럼 걸어 나오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혹여 윤석열 석방이 현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전전긍긍 잠을 못이루는 국민들도 많아졌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이제 헌법소호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국가적 혼란 상황과 국민적 불안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고 정의의 바로 세우는 최선의 길이”라며 “헌법재판소까지 우리의 절절한 염원이 전달되도록 크게 함성을 외치자”고 호소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당신의 임팩트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 개강일자** 2025년 3월 20일(목)
- 강의장소** 호텔이트하임 (구, 벨리리안광호점)
- 모집인원** 000명(선착순)
- 초청강사** 정치·경제·사회·교육·금융·문화·예술·스포츠 저명인사
-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호텔 석식 제공)
- 학사운영** 1년 과정 (1학기: 3월-6월 / 2학기: 9월-12월)
- 해외연수** 2025년 여름방학 중 (예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후 합격자 개별통보
- 접수문의** 광남일보 사입국 (T.062-370-7090)
- 접수방법**
 - 담당 소장양식(E-mail, FAX, 우편, 방문접수 가능)
 - E-mail : gnilbo2@daum.net / FAX. 062-370-7005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입국

광남일보